

"너는 못지 않으면 빈둥거린다."

178

2015.09.13

목격자 있으면 어디로 가지 않는다. 빈둥거림은 뇌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목격자가 생기는 순간 어디로 간다. 평생 간직해두 될만한 말이다. 몸끝에 가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바짝 말려놓아야 뇌는 활동한다. 긴장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빈둥거린다. "목격자를 향해 가다 보면 어느덧 몸끝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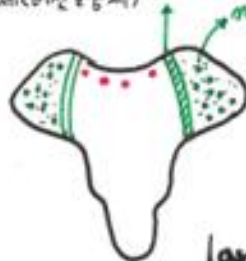
물론 흥련이 백가세의 문호가 되는 이유이다.

[illegible]

neuro-ectoderm
embryo



mushroom body cell



larva

→ 무척추 동물

해면, 강낭, 가포, 편형, 변형, 정지, 등지

→ $\frac{1}{2} \times 2 = 1$ (새우는 자기 몸무게에)
→ 해당한다.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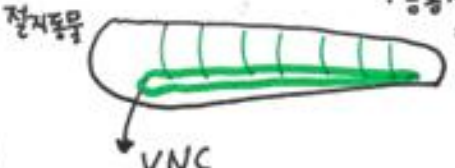
↳ 각각 생명체에게
각각 많다.

: 공통점을 체계적이 있다.

환경 동물에서 체질이 → 비쿠빌레
나온다.



형주 동문



정지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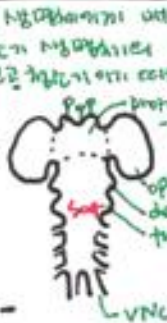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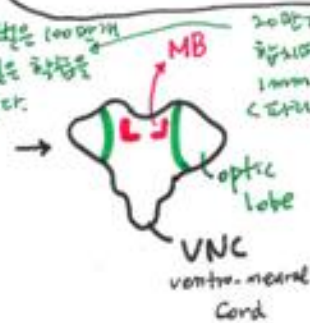
V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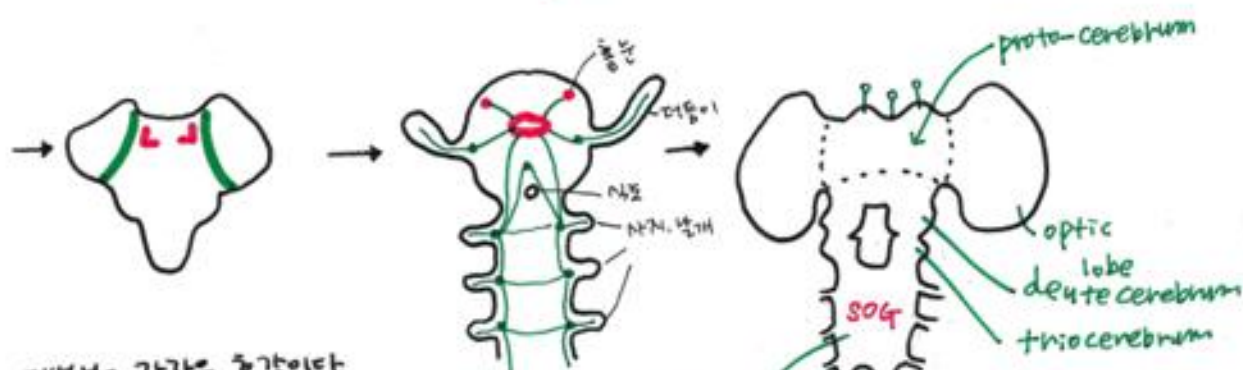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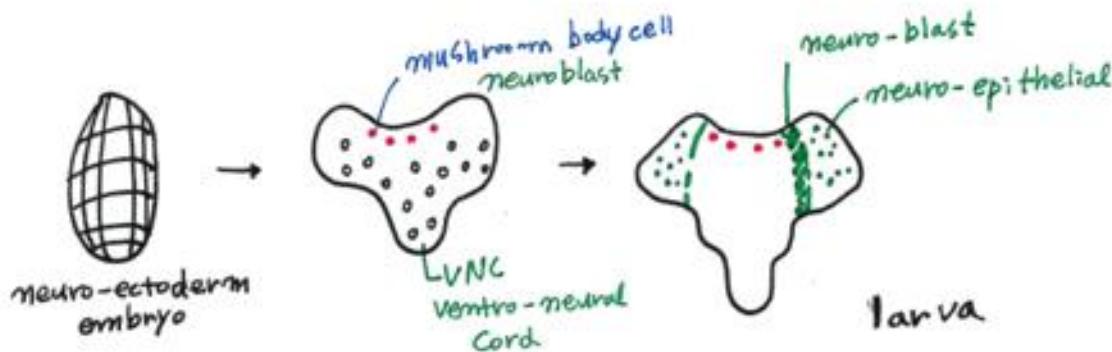
관공에서 청주 동물로 물 때
Card가 어떻게 뒤집혔는가가
핵심의 관심사이다.

카폴라의 변신에 나오는
상상력은 자연과학에서 쓰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흔한 이야기다. "대장항에서
일어나는 일은 코끼리에게도
일어난다."

본능의 더듬이느 쿼터결로 덮여 있고
각 마디마다 mechanical sense가
있다. 자기가 지나갈 때
바람의 진동까지 느끼는.
constant current의 진동까지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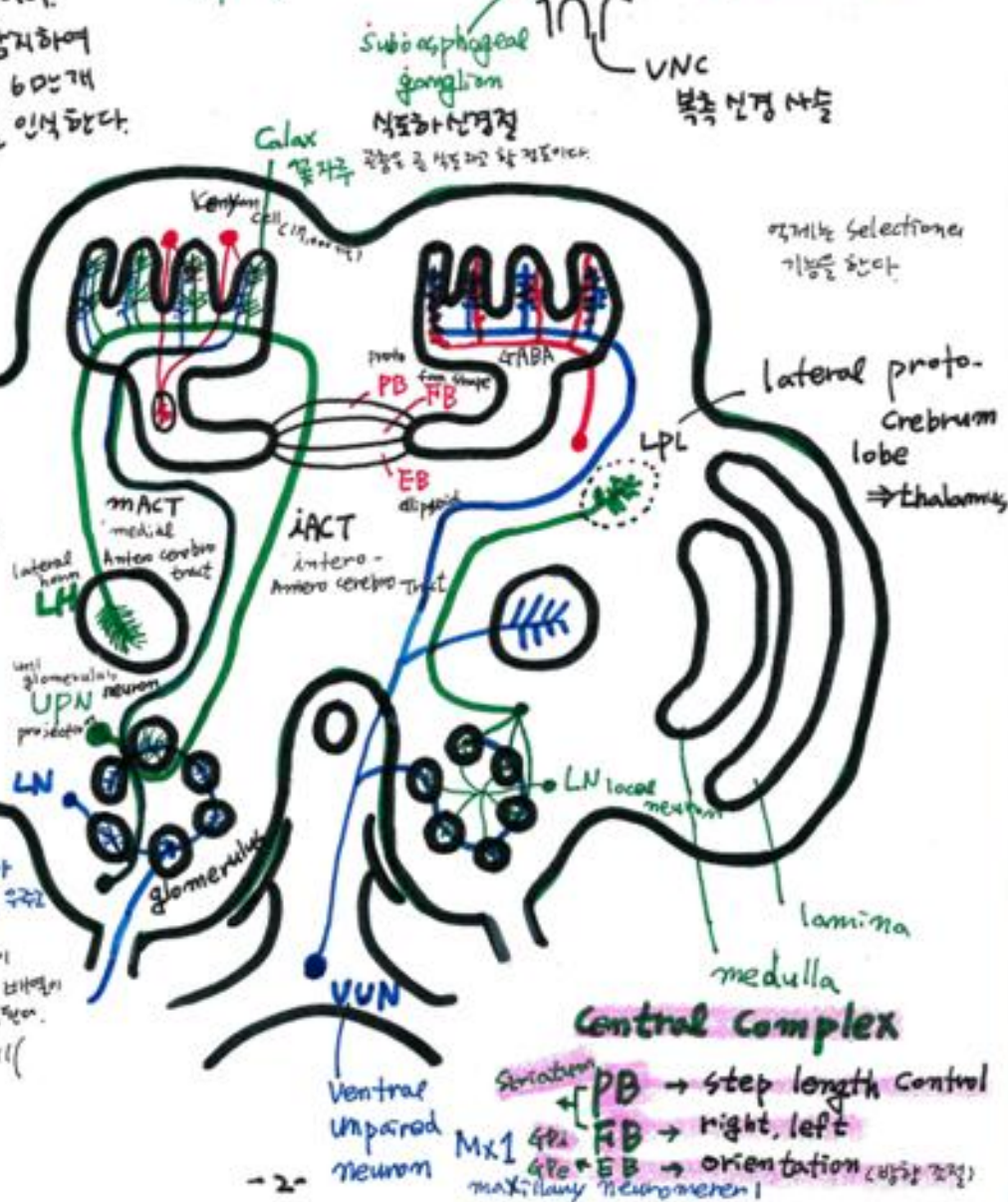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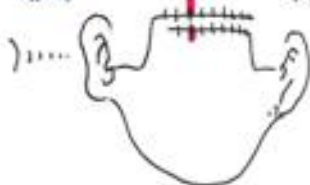


곤충의 대부분의 감각은 촉각이다.
데로목에 해당하는 자극을 감지하여
통신을 한다. 더듬이(안테나) 6쌍
접촉의 다발을 통해 메시지를 인식한다.



편광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전기와 전자기장이
함께 간다.
방은 이
편광을
받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광선은 자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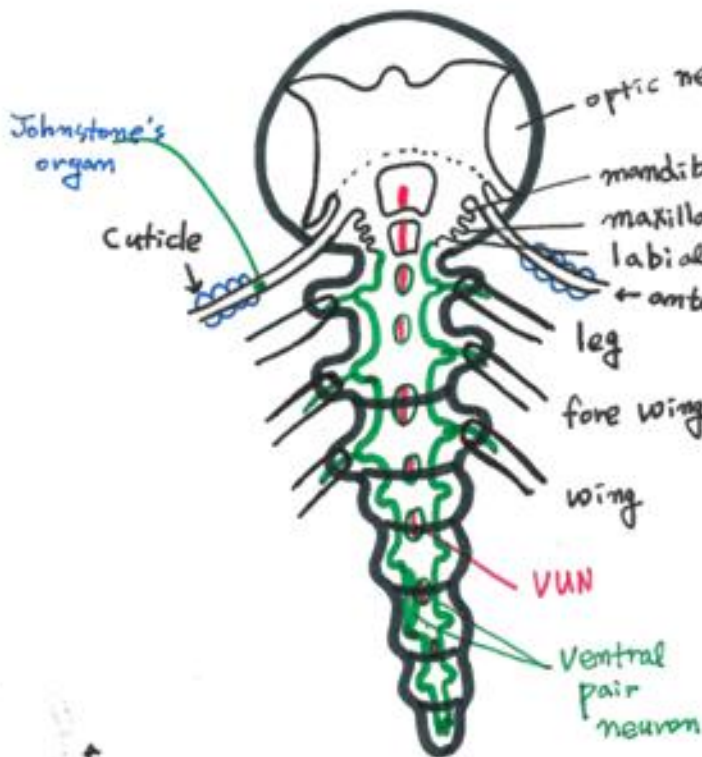
인간은 자외선, 편광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이해가 무척 중요하다.
광자에서 오는 빛의
방향성은 무척 중요하다. 방향성이
비밀적인 비밀이다.



각각은 Selectioner
기능을 한다.

lateral proto-
Cerebrum
lobe
⇒ thalamus

곤충은 외골격. 척추는 내골격이다. 곤충이 크지 못하는 이유는 탈피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가 붙는다. 외부의 골격이 있음으로써 활동이 제한되어 감각에 집중된다. 척추동물은 내골격을 채택하면서 근육의 양을 크게 부족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발달했다. 동물의 발달은 절지동물의 감각의 세분화에서 시작되었다. 감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곤충을 극복해야 한다.



SOG
⇒ Suboesophageal ganglion

곤충의 입
labrum 턱턱
mandible 턱턱
maxillary 턱턱 → maxillary palp 비각
hypopharyngeal 소화기
labium 아래입술 → labial palp 촉각



뇌를 알고 있는 과학은 달해병 법 정도이다. 달해병에 비해 교과서의 정보량은 1000 정도이다. 그러나 논문은 이것의 X1000이다. 과학은 끝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일이 끝이다.

문제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 문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달해병이 과학의 전법이라고 하지 마라. 수많은 노력이 많은 세상을 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어렵다는 단어를 익숙하게 있다고 하라. 익숙해진 세계는 세상을 더욱 확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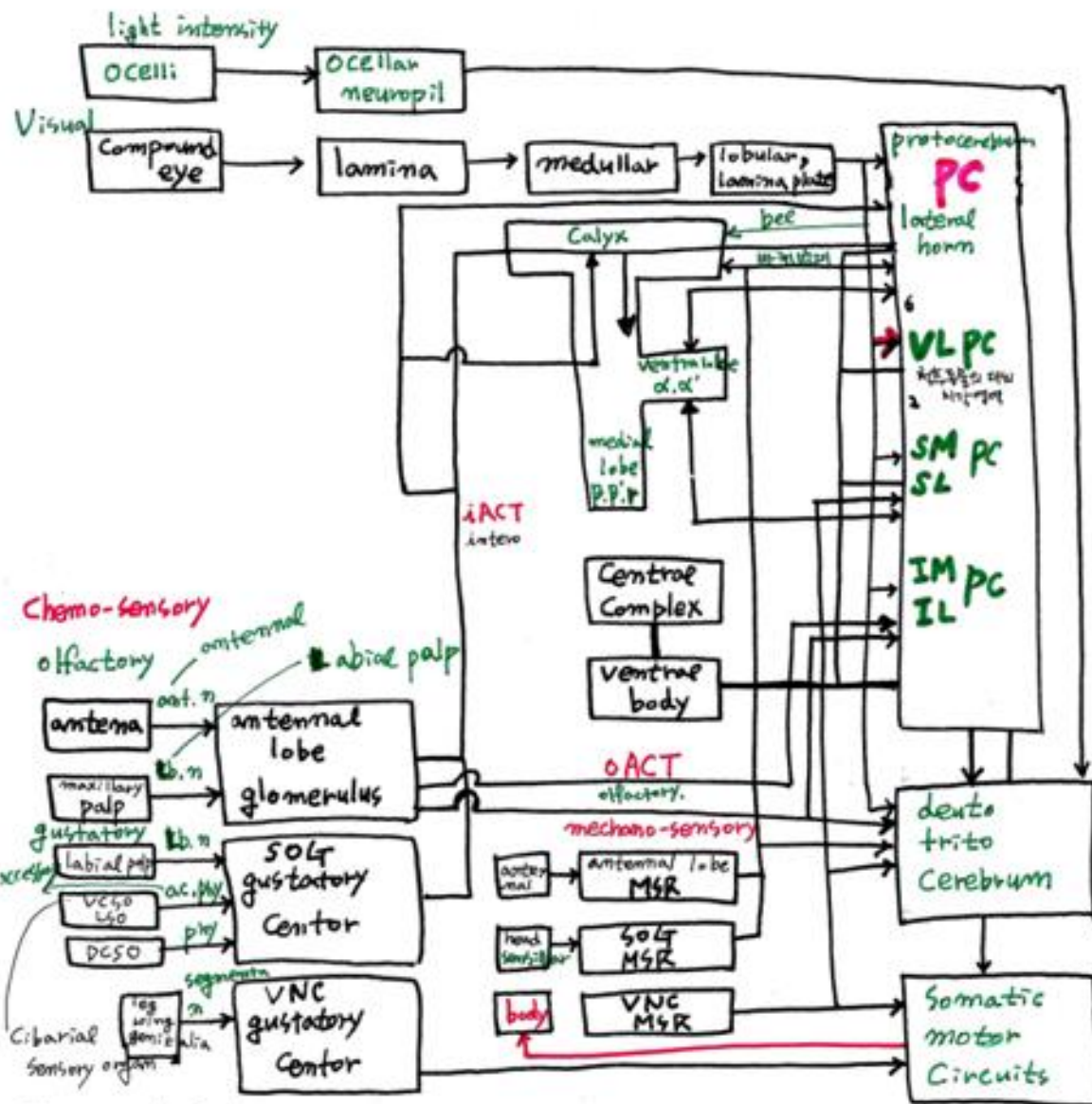
물레는 맛을 보는 것일까. 냄새를 맡는 것일까? 공기중에 작동을 냄새, 액체에 작동을 맡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Chemical sensory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인생상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강조된 사건은 세상을 축소시키거나 확대 혹은 심하게 애통 시킨다. 외부의 세계는 내복에서 강력하게 변형한다.

우리는 분명 기억을 본다. 기억 속에서 살고 기억을 비쳐 동시에 세상을 확장 혹은 축소시킨다. 우리는 그 동안 인문학이 강조한 세계를 통해 세상을 보아 왔다. 세계관은 다시 재배열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만약 플라톤을 떠나 사실세계에 도달한다. 꽃병이 보는 자와인리 과정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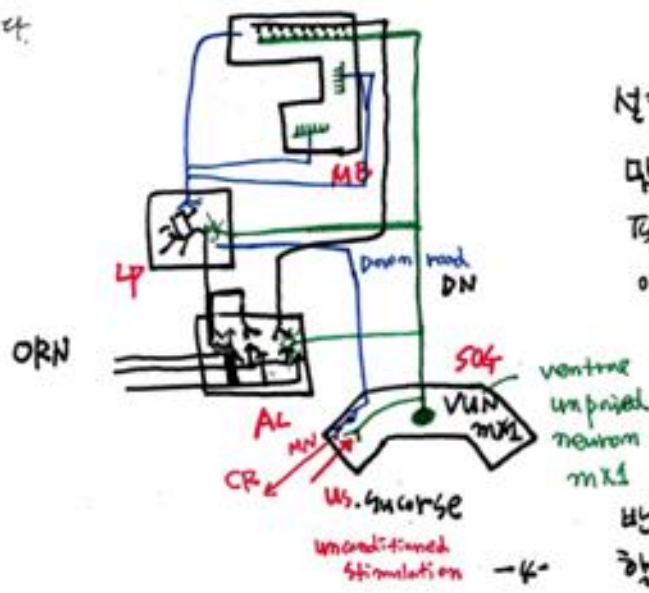
-3- 이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성이다.



광은 시각에 몰입한다.
 따라서 머리카락에, 날개
 몸통에 감각이 있다.
 female genitalia
 곤충의 생식관이 맛을 볼수
 있어서 알을 낳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저급의 광감각 센서이다.

지구상에 가장 진화에 성공한 종은
 절지동물이다. 정체를 놓고 보면
 숫자와 종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절지동물은 4,000종이

$S \rightarrow R \Rightarrow$
 → 고정적 조건반사
 → 도구적
 ↳ 행동결과 → 운동변화



선풍물에 왜 반응하는가?
 맛과 냄새를 비교하며 학습하여
 필요한 곳을 찾는다. 연합학습을
 이해하고 고정적 반사를
 생장하는 때 감각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
 선풍물은 부정적 -적극
 반응하고 항상 냄새를 선택하고
 학습한다.

관중이 사는 세계는 곧바로 분자 세계로 들어간다. 관중의 brain은 분자의 세계에
살다. 그 속에서 구별된 감각을 발현한다. 인간이 만나는 세계는 관중의 감각을
넘어설기 힘들다. 여기서 질문해야 한다. 과연 인간의 brain의 1.000억
단위의 neuron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관중학. 관중생리학"을 읽고 입의 구조와 신경 시스템을 그려보기를 바란다.
외골격을 선택하고 구별된 감각의 확장을 시킨 이유를 길게 사색하기를 권한다.